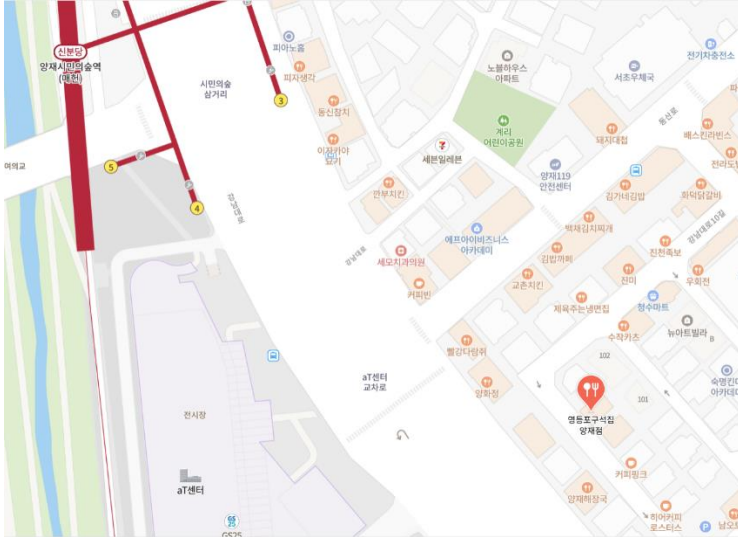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 구석집]

상호 : 구석집

영업시간 : 11:30 ~ 22:00

위치정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328-12



배고픈 점심 시간, 뜨거운 국물이 땀길 때.

주재원에서 복귀한 2023년, 한국 음식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 염곡사거리 근처 식당을 탐방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구석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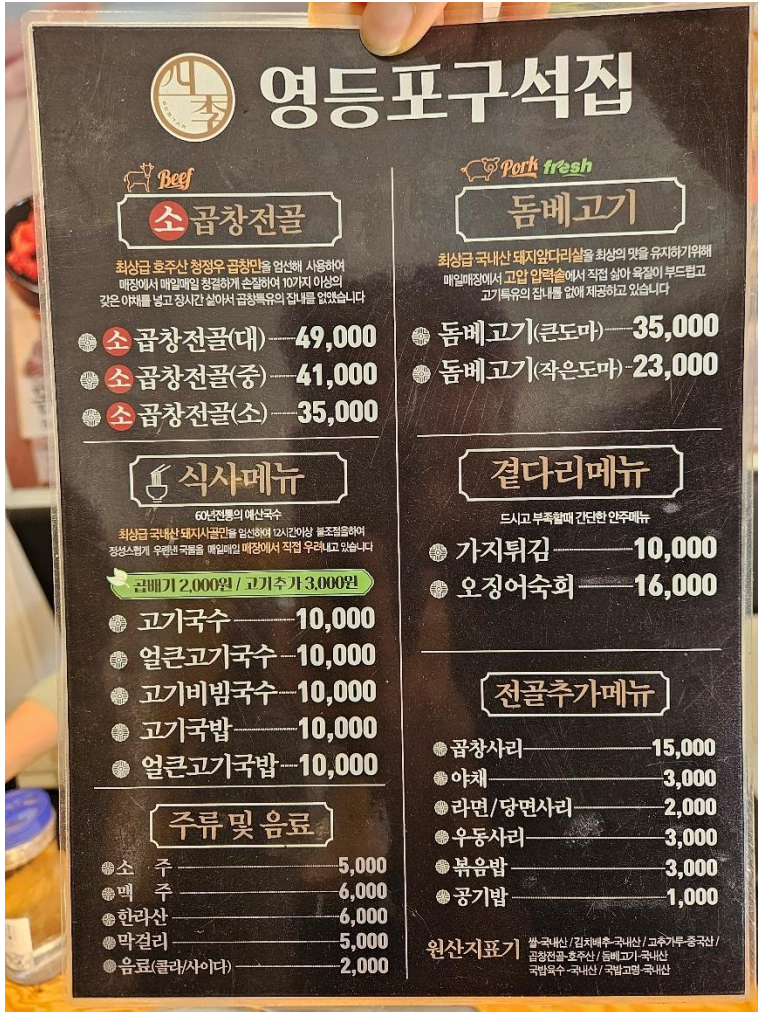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귀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및 제반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제주도 컨셉인가 싶었지만...

점심 주 메뉴가 고기국수/국밥과 돔베고기\*라서 처음에는 제주도 컨셉의 식당인가 싶었지만, 가게 인테리어나 다른 메뉴들에는 제주도 느낌이 별로 없었습니다.

메뉴 구성도 일관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돔베고기 - 삶은 돼지고기를 나무 도마 위에 두고 썰어 먹는 제주도 지역 음식)



무난한 인테리어와 아쉬운 화장실...

인테리어는 깔끔했지만 모던하지는 않았고, 의자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앉아있기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또한,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국물과 푸짐한 고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방문 때 주문한 고기국밥은 눈부신 맛은 아니었지만, 국물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국물에 고기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성비도 좋았습니다.

다양한 메뉴, 다채로운 맛의 만남

이번에는 다른 메뉴들에 도전해보았습니다. 돔베고기가 맛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곱창전골과 가지튀김은 처음이라 기대가 컸습니다.

- 돔베고기 : 기름이 조금 많아 보였지만, 비계 부분이 물컹하지 않고 살코기 부분과 잘 어우러져 맛있었습니다. 살코기 부위가 부드러워서 비계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떼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곱창전골 : 국물은 텁텁하지 않고 담백했으며, 곱창은 손질이 잘 되어 있어 냄새도 없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메뉴들로 배가 불러서 볶음밥은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 가지튀김 : 생각보다 잘 튀겨져 있었고,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한 김 식힌 다음 베어 물어보았습니다. 가지 사이에 고기도 살짝 들어 있어서 맛이 나쁘지 않았지만, 고기/새우와 채소가 더 어우러진 소가 들어간다면 훨씬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상큼한 메뉴나 반찬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회사 주변에서 수육이나 곱창전골이 생각날 때 한 번쯤 들러 볼 만한 식당

모던한 인테리어나 화려한 맛보다는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팁 :

메뉴들은 대체로 맛이 괜찮습니다.

주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식당 밖에 있습니다.

이 후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